

미국 보병학교 유학기

“민족이 우선 번영해야 되겠다는 것 통절히 느껴”

25세의 청년장교 김종필 대위는 6.25전쟁 중이던 1951년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6개월간 미국 조지아주 포트베닝에 위치한 미 육군보병학교에 유학했다. 김 대위는 신대륙 미국을 건문見聞한 기록을 국내 영남일보에 연재하였는데, 친히 쓴 이 글을 통해 그의 조국근대화 철학이 벌써 젊은 날에 배태胎胎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모두 30여 회에 걸친 연재 특약기사 중 일부만 추려 실는다.



일본 사세보항에서 미군 수송함으로 바뀌타는 장교 유학단

— 상항에서 보병학교까지 —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는 지금 미국 보병학교 한국 장교단 숙사의 일隅一隅에서 제2부를 쓰고 있습니다. 1951년 9월24일 *상항桑港을 출발한 우리 유학장교단 일행은 미 대륙의 중앙부를 횡단하는 약 3천키로의 여행을 끝마치고 9월28일 오전7시 무사히 이곳 보병학교에 도착하였습니다. 상항에서 여러분과 6천키로의 거리를 가졌던 우리들은 이제는 미 대륙과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약 9천키로나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 도착과 더

불어 제반 준비에 망살忙殺되어 펜을 들지 못하였으나 오늘에야 또다시 여러분께 우리들의 그간 소식을 알려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9월24일 오후 6시 저 유명한 ‘상항의 안개’가 원해遠海에 끼기 시작하였을 때 오클랜드를 출발하였습니다. 우리들을 실은 특별열차 풀맨은 붉게 물들은 태평양의 석양을 등지고 활엽수에 쌓인 조그마한 오클랜드역 플랫폼을 떠났습니다. 상항 시가市街를 구경 못한 것은 유감스러웠으나 관광을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닌 우리들은 앞으로 앞으로 그저 계획된 대로 계획된 시간에 계

*상항桑港: 미국 샌프란시스코

획된 행동을 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상항 출발 다음날 우리들은 해발 천키로나 되는 렉키산맥을 넘어서 캘리포니아 주를 뒤로 하고 아리조나 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들은 온종일 달려도 끝이 없는 사막 아닌 사막지대를 지났습니다. 이 지대를 통과하면서 나는 이 나라의 영화 서부활극西部活劇을 상기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서부활극이란 미 대륙의 서부를 개발하던 시대의 양상을 테마로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주가 되어있는 것은 미 대륙 연결의 기간基幹이 되는 철도를 부설함에 있어서 얼마나 참담한 고난을 거듭하였던가, 어떻게 그 많은 난관을 극복하였던가 하는 것을 그려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영광 뒤에는 눈물이 있는지라, 이 서부 내지 남부 일대에서 거주하던 아메리칸 인디언은 어느 듯 그 옛날의 용맹은 어디로. 오늘날에는 미 대륙의 남부 혹은 렉키산맥 주변의 국지局地로 쇠퇴하여 정부의 보호를 받아 절족絶族을 면할 정도로 겨우 그 일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나마도 점차 그 수가 줄어가고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를 여행하는 나 - 한민족의 조국을 방위하려는 전사의 한 사람인 나로 하여금 무연지감撫然之感을 금치 못하게 하여주고 있으나, 쇠퇴일로에 있는 그들을 생각할 때 나는 **민족이 강해야 되겠고, 민족은 문명해야 되겠고, 민족은 우선적으로 번영해야 되겠다**는 것을 통절히 느꼈습니다.

우리들은 유태민족의 국가 없는 비애悲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는 우리 한민족이 직접 36년간이라는 긴 풍상을 두고 왜정倭政의 질곡桎梏 하에서 신음하였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가 없는 민족, 쇠퇴하는 민족, 야만의 민족 - 이것은 모두가 세기의 비애입니다.

동포 여러분, 삼천만이 다 흠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유구

한 민족의 역사와 강토疆土는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번영시켜야 하고 배달민족은 평화스럽고 행복하여야 합니다. 우리 겨레가 지금 피와 땀으로 공산침략과 싸우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번영도 평화도 자유도 행복도 누가 거저 가져다 주는 값싼 덕德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모두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세대의 우리들이 전취戰取하여야 할 고가高價의 덕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 가지라도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차내車內에서 온갖 노력들을 하며 여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우리나라 격언을 여기에 와서 알게 된 것은 아닙니다만, 고국에서보다도 배움과 탐구에 대한 욕구가 많아진 것만은 확실한 변화입니다.

다음날 지상地上의 모든 그림자가 가장 짧아졌을 때, 우리들은 테네시 주의 멤피스 시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때 최신식 자동차 한 대가 우리들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들이 보고 있는 중에 문이 열리고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내렸습니다.

그는 차창 가까이 와서 "한국 장교들이지요? 신문에서 알고 달려 왔어요." 하며 펍이나 반가와 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나의 남편은 대위인데 한국전韓國戰에 간지 반년이 넘어요. 편지는 잘 옵니다."하고는 우리들의 계급을 묻더군요. 대위라니까 우리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펍 젊고 소년 같다고 하더니, 창에 걸려있는 태극기를 가리키고 자기에게 줄 수 없느냐고 합니다.

우리들은 한국에서 싸우고 있는 자기 남편 사진 위에 다 걸어놓겠다고 요구하는 그 여인에게 기쁜 마음으로 조그마한 태극기 하나를 기증하였습니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남편에게 편지하겠노라고 하고 우리들의 열차가 출발한 후까지도 플랫폼홈에 서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도로든 아스팔트로 포장된 대폭大幅의 도로였는데 수많은 자동차들이 쉴 사이 없이 왕래하고 있었습니다.